

News

8월 코픽스 2.96%...9년 7개월 만에 최고

한국경제TV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전월대비 0.06%p 높은 2.96%로 집계... 2013년 1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
16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 반영 예정... 신잔액기준 코픽스도 전월비 0.17% 증가한 1.79%

주담대도 비대면... 인뱅 거래 하루 평균 1조원대 돌파

디지털타임스

인터넷전문은행들, 하루 평균 대출 신청 건수 35,000건... 이용 건수 꾸준히 늘어 역대 최대 기록 갱신 중... 신규 상품으로 주담대 출시하면서 관련 신청 금액 증가 영향
카카오뱅크, 10월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늦어도 연내 출시 위해 분주... 출시할 경우 세 은행 모두 취급하게 돼... 앱 편의성과 신용평가모델 고도화로 고객 끌어들이 전략

금감원장 "코로나 대출,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하진 않아"

뉴시스

이복현 금감원장, 이날 말 종료 앞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출 연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 열어두어...
시장 격변 상황에서 충격이 가계와 중소기업에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현재 구체적 방침은 금융위, 기재부 등 고위 당국자들과 협의 중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회원수 100만 돌파

뉴시스

신한은행, 금융권 첫 배달앱 '땡겨요'가 출시 8개월 만에 회원 수 100만명 돌파... 1월말 1.8만명에서 100만명으로 54배 성장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MAU는 59만명으로 6월대비 4배 증가... 현재 배달앱 중 월간 이용자 수 4위인 배달특급 넘었다는 설렘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 폭증할까... "추석 지났는데 또 태풍?"

아시아타임즈

기상청, 15일 오전 3시 기준 태풍 난마돌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해상에서 시속 10km로 움직이고 있다고 관측... 강풍 반경에 영향 예상
집중호우와 태풍 우려로 침수 피해가 커 이동경로에 촉각 중... 올 상반기까지 양호했던 차보험 손해율 상승 조짐...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우려

척박해진 영업 환경, 보험사 전속 설계사 줄어든다

이코노믹리뷰

손보사들, 전속 설계사 수 감소세 전환... 올해 2분기 말 기준 주요 손보사 10곳의 전속 설계사 수 10만 3,511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0% 감소
많은 전속 설계사 수 보유한 곳은 메리츠화재로 24,947명... 생보사들도 전속 설계사 수 감소세 중... 설계사 고용보험과 금소법 시행 등 영향으로 영업 환경 위축 영향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배당소득세 안낸다... 26일부터 시행 유력

헤럴드경제

기획재정부, 소수 다누이 주식을 신탁 수익증권이 아닌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 과세하기로 방침... 현재 최종 검토 돌입
유권해석으로 당초 예정한 이달 26일 국내주식 소수 단위 거래 시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예결원,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예정대로 완료할 방침

'재개발' 동화빌딩 매각이 줄다리기...우선협상자 바뀌나

이데일리

서울 중구 서소문동 동화빌딩의 우선협상대상자 바뀔 가능성 높아... 기존 시티코어 컨소시엄이 매도자 측에 가격 인하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높기 때문
입지, 개발호재, 시장호황 등 3박자로 운용사들의 관심 높아... 시티코어가 가격 인하 계속 고집하면 최악의 경우 거래 틀어질 가능성도 존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